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말세에 당하는 고통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Tag: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3:1-5)

오늘은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든 세대는 고통이 있다. 과거에는 압제의 고통이 있었다. 전쟁의 고통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만 사람 구실을 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배울수도, 출세할수도 없이 살았다. 여자들은 더했다. 양반들은 수입이 많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백성들은 이리 저러한 세금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었다.

천재지변을 당하면 백성들은 신세타령만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낫다. 유교적 사상 때문이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여겼다. 농부를 함부로 대우하지는 않았다. 충효사상 때문에 그나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근본 없는 깡패가 왕이 되는 미개한 나라와는 차원이 달랐다.

조선말기와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굶주림의 고통 속에 지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보릿고개는 사라졌다. 운송 비용이 낮아지자 배고픔의 고통이 사라진 셈이다.

그 후로는 가난의 고통에 시달렸다. 온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

해서 몸부림쳤다. 버스는 콩나물시루가 되었고, 사회는 일한 만큼 벌어들일 수 있었고,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었다.

80년대 부터는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민주화 바람이 불어 닦혔다. 5.18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주의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다. 대학가에서는 아예 주사파가 등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을 망치는 자들이 바로 이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들이 고통 당하는 시대였다.

70년대부터 대중들에게까지 알려지기 시작한 여성시대가,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본격적인 여성주의 시대가 되었고, 여성주의가 성폭력과 연계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위주의 시각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 여성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고, 남성혐오가 극에 달하게 되어 결국 남성들은 점점 위축되어갔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80년대까지는 전통적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우리사회의 주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면, 그 이후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파리의 68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가정파괴, 교회파괴, 교권파괴, 모든 권력의 파괴 운동이 신공산주의 운동의 모토가 되어 온 세계를 물들이고 있는 중이다.

결국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고통당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신적인 고통과 아울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일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다.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고통의 시초를 자기사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

웃사랑이 사랑의 기초이고 근본정신인데, 그 자리를 자기 사랑이라는 변태적 사랑이 차지했다. 자기사랑이 곧이 나쁜 말은 아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없는 자기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모호한 돌연변이 사랑에 불과하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주의에 민감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은 원래부터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양육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속에 공존하거나 헌신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우지 못하고, 사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람직한 자기 사랑이다.

그러나 내가 무시당하고 있지 않은지, 내 권리가 빼앗기고 있는지,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두려워한다면 그는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금쪽이들은 고통당한다. 그들은 사회가 항상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권리는 빼앗고, 자기만 칭찬받지 못하고, 자기 의견만 존중받지 못한다고 화를 낸다. 금쪽이들은 아직 자기의 이기심을 감추는 능숙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마귀의 표정을 지어낸다.

몇 달 전에 천사의 미소를 지닌 여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아무도 이 학생의 자살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탐정처럼 추리력을 이용해 유추해 보기는 했다.

‘이 학생은 명석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더 명석하기를 요구했다. 이 학생은 친절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아직 상냥함이 부족하다고 늘 말했다. 이 학생은 공부를 곧잘 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다.

이 학생은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네가 완벽한 것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 왜냐면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했으나 결코 그 사랑을 받지 못할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 딸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가 조금 만 더 노력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빠진 나머지 아이를 향한 압박의 고삐를 놓을 수가 없었다.

결국 아이는 남몰래 자신을 자해하면서 자신을 향한 잘못된 사랑을 키워 나갔다. 스스로도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이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몸부림쳤다. 이 학생은 자신의 심정을 도화지에 표현하기도 했는데, 가학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이 그림을 친구에게 들키고 말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자신의 가학성애를 들킨 아이는 견딜 수 없어 자살하고 말았다.

잘못된 자기 사랑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셈이다. 끝.’

성경은 본질상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신만 깊숙이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 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푸신다.

말세에 당하는 고통은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인한 고통이다.

그 다음 나열된 것들은 자기사랑으로 인한 독이 가치관과 정신과 영혼을 파멸시키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죄의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집중된다.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돈은 세상의 모든 재화의 총화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강력하고 유용하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많은 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근본적으로 돈이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다. 지혜로운 자에게 10억이 있는 것과 미련한 자에게 10억이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돈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곧 고통을 유발한다.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라 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최악이고 고통의 근원이 된다.

이처럼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삶에 나타난다.

3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
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3절의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이에나’다.

4절 부터는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
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 즉, 대외 선전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한다는 뜻이다.

그는 배신자이다. 왜냐면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자이기 때문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다.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
서 네가 돌아서라

이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다. 왜냐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
이다. 예배하는 척은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는 않는다. 헌금하는 척은 하지만, 기복적
인 헌금이 지 헌신까지는 아니다. 성경은 이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악하면서도 선한척을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경건한 성도의 주변인으로, 경건한 성도를 존경하고 따르

나 스스로는 경건한 자라는 이름표만 달고, 경건한 자로 대접받고 싶은 자들일 뿐이다.

말세에 당하는 고통은 배고픔이나 전쟁이나 가난이 아니다. 말세에 당하는 고통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고통이다.

우리 주변에는 말세에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니, 이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이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함께 일을 도모하거나, 그들 밑에서 종노릇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 주변에는 말세에 당하는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 주시고, 참된 진리가 전파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거짓된 기독교인이 아닌, 참된 기독교인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고 그러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